

제2금융권 “고맙다, 초저금리”

은행권보다 이율 최대 2배↑ ... 비과세 한도도 늘어
광주·전남 신탁 등 지난달에만 2,000억 이상 몰려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지는 등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저축은행·신탁·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은행권에 비해 최대 2배에 달하는 고금리에도 올해부터 제2 금융권의 예금상품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전남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연 이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대로 낮추면서 저축은행·신탁·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

이 수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신탁과 새마을금고에는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 늘면서 고금리를 찾아 떠도는 부동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 실제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의 14%가 소득세로, 소득세의 10%(1.4%)가 주민세로 부과돼 총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제2 금융권 예금에는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붙어 이자 차익에 추가로 세금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96개 신탁에는 지난달에만 1천287억원의 예금이 새로 들어왔다. 이는 지난

한해 총 예금 증가액 3천억원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지역 신탁의 평균 금리는 5.6%로 은행권의 금리보다 2%포인트 높다. 금리가 5.7~5.8%에 이르는 신탁도 많은데다 6%를 넘는 금리를 제공하는 신탁도 1곳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도 몰려드는 돈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역 새마을금고의 연 평균 금리가 연 6.28%로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금이 몰리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는 지난 한달동안에만 776억원이 몰려 월 평균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1년전인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지역 새마을금고 수신액은 전월대비 15억원이 줄어드는 등 인기를 끌지 못했다.

3,000만원을 6% 금리로 1년 맡기면

제2금융권	구분	은행
180만원	이자	180만원
1.4% (농어촌특별세)	세금	15.4% (이자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2만5,200원	부과세금	27만7,200원
177만4,800원	실수령이자	152만2,800원
3,177만4,800원	전체수령액	3,152만2,800원

저축은행들도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다. 7개 지역 저축은행들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4.80~6.20%로 7%를 웃돌던 지난달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은행권에 비해 높아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1~2개월 사이 수신 증가폭이 이전에 비해 30~40% 늘었고, 동양저축은행도 1~2개월 동안 80억원가량 수신액이 증가했다.

신탁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박용남과장은 “제2 금융권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금리차와 비과세 예금 한도 확대 때문이다”며 “최근 금융시장 불안속에 안정적으로 이자 수입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봄엔 꽃무늬 가방 1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2층 잡화매장에서 올 봄 패션 트렌드인 화려한 꽃무늬 프린트의 가방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상습 연체 中企 보증 지원 못받는다

금융위,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휴업이나 파산, 폐업한 중소기업은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휴업이나 파산, 부도,

폐업기업, 대출금과 보증료 연체 기업, 신용보증기관이 대지급 채권을 회수 못 한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은 보증 만기 1년 연장과 신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불량 기업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사업장이 가압류된 기업 등은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관, 은행은 중소기업이 보

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용도 외로 쓰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기존 신용대출과 담보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기관 임직원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적 비리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연합회에 보증제한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송부하는 한편 5일 단위로 은행의 보증부 대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이상 연체 中企 대출제한

- | | |
|-----------|--|
| 만기연장 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업, 파산, 부도, 폐업 ② 보증·보험 사고기업(대출금, 보증, 보험료 연체 등) ③ (보증·보험과 관련) 대지급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④ 허위자료 제출기업 |
| 신규보증 신청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기연장 불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파산(연체 포함), 개인회생 결정 및 신용회복지원 확정, 재무불이행자 명부 등 제, 청산절차 진행기업 ③ 가-②, ③에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기업 ④ 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정보가 등록(경미사유 제외)되거나 비금융권 연체정보를 보유한 경우(지신분은 비금융권 연체 제외) ⑤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거나 사업장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중인 기업 |

수출·입 3개월 연속 감소

광주·전남 1월 동향

18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광주는 지난해 11월 한달 수출이 7억7천200만달러에 달했으나 12월에는 6억2천100만달러, 지난 1월에는 4억8천700만달러로 3개월 내리 감소했다. 수입도 2억6천900만달러, 2억5천200만달러, 2억4천800만달러 등으

로 역시 석달 연속 줄었다. 광주세관은 “광주시의 수출입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가전제품, 승용차,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줄고 이 때문에 관련 원자재 수입이 줄면서 수입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2003년 4월 이후

지난달까지 71개월 연속 흑자행진 중인 무역수지 흑자폭도 2008년 11월 5억200만달러에서 12월 3억6천900만달러, 올해 1월 2억3천900만달러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전남의 지난달 수출·입도 각각 10억8천100만달러, 20억7천300만달러로 전남(16억3천200만달러, 24억8천400만달러)보다 모두 감소해 무역수지가 9억9천3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주택연금 대출한도 3억→5억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가입 자격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가입자격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 1주택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위는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의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와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한도의 30%까지만 수시 인출이 가능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과 재산세 25% 감면 대상도 현행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건희 전 회장, 차명재산 실명 전환

지난 1월 삼성생명 주식이어 삼성전자 224만5천株 전환



삼성전자는 18일 이준희 전 회장이 삼성전자 보통주 224만5천525주를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또 우선주 1만2천398주도 실명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보통주 3.38% (498만5천464주), 우선주 0.05% (1만2천398주)로 합계 2.94% (499만7천862주)가 됐다.

이에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초 삼성생명 주식 324만4천800주를 실명 전환했다.

이 전 회장의 보유주식 실명 전환은 지난해 4월 경

영채신안 발표 당시 특검 수사에서 조세포탈로 문제가 됐던 차명계좌 등 차명재산을 실명전환하고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뒤 남은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 전 회장 보유주식 가운데 실명전환되지 않은 주식은 삼성SDI 39만9천371주만 남게 됐고, 삼성SDI 보유주식 역시 금명간 실명전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명전환은 작년 4월 채신안에서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실행조치이며, 차명재산 실명전환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SAFA

신뢰, 책임, 배려

SAFA는 1984년 창립 이래 25년간 10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SAFA는 1984년 창립 이래 25년간 10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SAFA는 1984년 창립 이래 25년간 10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만제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

조이케질 SF-01

조이케질 SF-01은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오피스 의자입니다.

042) 365-3200 | 1688-1471 | 02-487-8256